

한글편지를 통해 본 조선후기 과거제 운용의 한 단면

‘진성이씨 이동표가 언간’을 중심으로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학부 교수, 조선시대 고문서학 전공
ckmok@aks.ac.kr

- I. 머리말
- II. 유래가 드문 대증광시(大增廣試)
- III. 부정행위와 이로 인한 파방(罷榜)
- IV. 회시에서 장원한 이동표
- V. 연망을 맺는 자리, 도문연(到門宴)
- VI. 맺음말

이 논문은 2011년 2월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국내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이동표 언간」을 통해 본 조선시대 과거제도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I. 머리말

이 글에서 필자는 이른바 ‘진성이씨 이동표가 언간’이라고 알려진 한글간찰 몇 점을 통해서 조선후기 과거제 운용상의 한 단면을 살펴보고 아울러 조선시대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과거의 의미가 어떠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¹⁾ 이동표(李東標, 1644-1700)는 조선 숙종대에 활약했던 문신으로 1675년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2년 후인 1677년에 증광시 문과에 응시하였다. 그러나 회시의 종장(終場)에서의 부정 사건이 발생하여 시험 자체가 취소되고 말았다. 그는 이때의 충격으로 한동안 과거에 응시하지 않다가 1683년에 실시된 증광시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생활을 시작하였다. 1689년에 그는 인현왕후(仁顯王后)의 폐위를 반대하여 처벌을 받은 박태보(朴泰輔)와 오두인(吳斗寅) 등을 구하기 위해 상소했다가 양양현감으로 좌천당하였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수찬(修撰)과 헌납(獻納) 등 청요직에 두루 임명되었으나 관직에 임명될 때마다 자주 사직하여 유림들로부터 ‘소퇴계(小退溪)’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가 남긴 한글간찰은 36점으로 이명익(李溟翼)이 쓴 한글간찰 1점을 포함하여 총 37점이 ‘진성이씨 이동표가 언간’이라는 이름으로 전하고 있다.²⁾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가족이나 지인들과 주고받았던 간찰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의 여러 제도를 살펴보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영위했던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파악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간찰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찰 해독이 어렵다는 점이다. 국한문을 막론하고 흘림 글씨로

- 1) ‘진성이씨 이동표가 언간’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황은영, 「조선시대 언간 자료의 명칭 고찰」, 『정신문화연구』 123, 310쪽 참조.
- 2) 위 논문, 310쪽과 322쪽 참조.
- 3) 간찰을 활용한 연구 중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것을 중심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백두현, 『한글편지로 본 조선시대 선비의 삶』(역락, 2011); 안동교, 「간찰에 나타난 학술적 교유의 양상들」, 『고문서연구』 38(2011); 이상훈, 「임진왜란 연구에서 간찰의 활용」, 『고문서연구』 33(2008); 조평환, 「추사 김정희의 유배서간에 나타나는 제주의 생활정서」, 『동방학』 13(2007); 이향백, 「초려 이유태의 서간에 나타난 출처 사상」, 『한국사상과 문화』 35(2006); 강민구, 「樂齋 書簡을 통해 본 17세기 嶺南 서간의 특질」, 『동방한문학』 30(2006).

쓰여 있는 데다가 우리에게 생소한 당시의 관습이나 용어 등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간찰을 읽고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간찰에 나오는 정보들이 대부분 단편적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글을 쓰려면 그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이나 제도 등이 자세히 밝혀져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학계의 수준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간찰을 이용해서 글을 쓰려고 할 경우에는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이나 제도에 관한 것을 추가로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몇 갑절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학계에서는 아직까지 간찰을 그 당시 사실을 반영한 객관적이며 사적(史的)인 자료로 평가하기보다는 감성이 잘 표현된 사적(私的)인 자료로만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간찰을 이용하여 글을 쓰려는 연구자, 특히 역사학 전공의 연구자들은 심리적으로 커다란 부담을 느끼게 된다. 바로 이러한 부담이 간찰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⁴⁾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간찰을 이용한 글쓰기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과제 중의 하나이다. 간찰은 아주 생생한 정보를 담고 있는 1차 사료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조선왕조실록』은 누군가에 의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편찬된 2차 사료인 데 비하여 간찰은 그러한 편찬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사료로 당시인들의 생각이나 생활 모습이 사실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또 어떠한 제도 아래에서 실제로 개인이 겪는 경험이나 그 당시의 세부적인 제도 운용 사실 등은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관찬사료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은 데 반하여 간찰에는 이러한 모습이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간찰은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의 생각이나 생활 모습 또는 어느 특정한 제도 아래에서 겪는 당시인들의 경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1차 사료이므로, 장차 이를 이용한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은 그러한 시도 중의 하나로, 한글로 쓰여진 ‘진성이씨 이동표가 언간’ 37점 중 과거제도와 관련된 10여 점을 활용하여 조선후기의 과거제

4) 이 외에도 간찰을 이용해서 글을 쓰려면 기존의 논문쓰기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글 쓰는 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운용의 실제 모습을 상세히 살펴보고 조선시대인들에게 과거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⁵⁾

II. 유래가 드문 대증광시(大增廣試)

이동표의 「연보(年譜)」에 의하면, 그는 원래 과거시험을 치르기 위한 공부나 과거 급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동생인 이세표(李世標)가 과거시험 공부를 하다가 병이 나서 죽고, 여동생마저도 요절하자 어머니가 크게 상심하였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과거시험을 준비하였다.⁶⁾ 그는 32세 되던 숙종 원년(1675) 8월에 증광생원시(增廣生員試)와 문과 초시에 모두 합격하였다.⁷⁾ 그래서 회시를 치르기 위해 상경했는데 당시의 시관(試官)들이 ‘이번의 문과에서는 이동표가 반드시 장원할 것’이라고 예상하자 그의 친구들이 이 소문을 널리 퍼뜨렸다. 그러자 이동표는 회시 당일 일찍 일어나 일부러 머리를 천 번이나 빗다가 늦어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져 당시인들은 이동표를 ‘이천소(李千梳)’라고 불렀다.⁸⁾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숙종 2년(1676) 10월에 문과가 다시 설행(設行)되자 이동표는 이에 응시하였다. 이때 그가 응시한 시험은 대증광시라는 특별한 시험이었다. 일반적으로 왕실이나 종묘사직과 관련된 경사가 있으면 오래 특별한 시험, 즉 별시(別試)를 설행하였다. 온 백성이 경사를 축하하고 국왕의 은총이 백성들에게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

5) 인간을 이용한 연구 중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승희, 『순원왕후의 한글편지』(푸른역사, 2010); 백두현, 『현종과씨 인간 주해』(태학사, 2003); 황문환, 『16, 17세기 인간의 상대경어법』(태학사, 2002); 조항범, 『주해 순천김씨묘 출토 간찰』(태학사, 1998); 김일근, 『三訂版 諺簡의 研究』(건국대학교 출판부, 1986).

6) 『懶隱先生文集』 권7, 「年譜」, 『영인표점 한국문집총간 속』 47, 110쪽. “先生初不事學業及第 世標讀書過瘁病沒 一妹又夭 念無以慰親意 遂勉治程文 始陞上庠.”

7) CD-ROM 『司馬榜目』(서울시스템, 1997)에 의하면, 그는 이때 생원시에 3등 3위로 합격했으며 거주지는 예천(醴泉)이었다. 생원시 석차로만 이야기한다면 그는 이 시험에서 그다지 우수한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던 것 같다.

8) 『懶隱先生文集』 권7, 앞의 책, 110쪽. “肅宗大王元年乙卯(先生三十二歲) 八月 中增廣生員試(註省略-인용자주), 連中東堂鄉解, 赴禮園(先生嘗赴東堂試, 考官語人曰, 壯元不出李某, 親舊聞而喧傳.) 試日先生晨起理髮, 故爲千梳不及門. 時人傳笑, 以爲李千梳.” 그러나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 과거에 응시했다는 그가 단지 회시에서 장원할 것이라는 소문 때문에 시험에 일부러 응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 그런데 국가와 왕실의 경사가 겹쳐 일어나자 담당자들은 별시를 확대시켜 증광시를 실시하자고 국왕에게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국왕은 증광시를 실시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경사가 생기자 신하들은 증광시 중에서도 특별한 대증광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숙종 2년의 대증광시와 관련된 경사는 모두 일곱 가지였다. 『국조문과방목』에 의하면, 첫 번째 경사는 ‘동조환후평복(東朝患候平復)’, 즉 왕후의 환후 회복이었다⁹⁾, 두 번째는 ‘선조세실(宣祖世室)’, 즉 선조 위패의 종묘 봉안이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경사는 ‘인선왕후부묘(仁宣王后祔廟)’와 ‘현종대왕부묘(顯宗大王祔廟)’, 즉 인선왕후와 현종대왕의 위패를 종묘(宗廟)로 옮기는 것이었다. 다섯 번째는 ‘양동조상존호(兩東朝上尊號)’, 즉 두 분의 왕후에게 존호를 올리는 것이었고, 여섯 번째는 ‘중전책봉(中殿冊封)’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은 ‘현종가상휘호(顯廟加上徽號)’, 즉 현종에게 휘호를 첨가해서 올리는 것이었다. 관리들은 이와 같이 왕실이나 종묘사직과 관련된 일곱 가지 경사를 성대히 축하하고, 백성들에게 이 은혜가 널리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국왕은 이를 받아들여 대증광시를 설행하기로 하였다.¹⁰⁾

그런데 별시를 설행하려 했던 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대증광시 설행으로 확대되었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별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숙종 2년 2월에 시작되었다. 머지않아 인선왕후의 부묘례(祔廟禮)를 시행해야 할 것이므로 이를 마친 후 경과(慶科)를 베풀어야 한다고 예조에서 건의하자 숙종은 이를 받아들여 별시를 설행하려 하였다. 인선왕후는 현종의 어머니인 효종비 장씨(孝宗妃 張氏)인데 현종 15년(1674) 정월에 숨을 거두었다. 그 후 3년상이 끝나고 장씨의 신주(神主)를 종묘로 모시는 날이 바로 이해 4월 9일이었다. 그래서 예조에서 2월에 미리 이와 같은 건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두 달이 채 지나지도 않아 예조에서는 수정 건의를 하였다. 장차 행해야 할 또 다른 경사까지 포함시켜 별시를 치르자고 요청했던 것이다. 다른 경사란 ‘현종대왕의 부묘’, ‘양자전(兩慈殿)의 존승’, ‘중궁의

9) 이하의 설명은 『국조문과방목』 2(대학사, 1984), 864쪽 참조.

10) 이 시험에 대해서는 송준호·송만오, 『조선시대문과백서(중)』(삼우반, 2010)의 설명에서 커다란 도움을 받았다. 이 책에는 대증광시 설행의 원인과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책례'인데 이를 '중시대거별시(重試對舉別試)'와 합하여 시행하지는 것이었다.¹¹⁾ 다른 경사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했으므로 먼저 중시대거별시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하면, 중시란 이미 문과에 합격하여 관리가 된 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었으며, 대거는 그 시험에 짝해서 실시되는 문무과와 생원진사시험을 의미한다. 즉, 중시를 실시할 때 이를 기념하기 위해 문무과와 생원진사시를 함께 설행했는데 이때의 시험을 중시대거별시라 하였다. 중시는 관례적으로 간지(干支)에 '병(丙)'자가 든 해에 치렀는데 마침 숙종 2년의 간지가 병진(丙辰)이었으므로 이를 합쳐서 설행하자고 건의했던 것이다. 숙종은 이번에도 예조의 건의를 흔연히 받아들여 추수가 끝나는 10월에 시험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바로 위에서 말한 '양자전 존숭'이란 앞에서 소개한 '양동조상존호'인데 그중 한 분은 이미 언급한 숙종의 대왕대비이자 효종비인 인선왕후 장씨이며, 다른 한 분은 현종비(顯宗妃)인 명성왕후(明聖王后) 김씨이다. 인선왕후는 이미 사망하였지만 명성왕후는 생존해 있었는데 같은 해 7월 초하루에 인선왕후에게는 '휘헌(徽獻)'이라는 휘호가, 그리고 명성왕후에게는 '현열(顯烈)'이라는 존호가 각각 올려졌으며¹²⁾ 존호례(尊號禮)는 이로부터 세 달이 지난 10월 20일과 21일에 거행되었다.¹³⁾ 또 위에서 말한 '중궁의 책례'는 앞에서 소개한 '중전 책봉'이었는데 숙종이 김만기(金萬基)의 딸을 중전으로 책봉한 것을 말한다.

한편 이해, 즉 숙종 2년 6월 초에 발병해서 한때 위태로운 고비에 이르렀던 명성왕후가 같은 달 중순경에 무사히 완쾌되었는데 앞에서 소개한 '동조환후평복'이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 그러자 왕은 별시 실시 명분에 이를 추가하고 더 나아가 별시를 증광시로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¹⁴⁾ 그렇지만 특별 시험을 치르는 데 필요한 명분을 추가하는 일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숙종은 위의 여섯 가지 경사에 선조의 세실(世室), 즉 종묘에 선조의 신실(神室)이 정해진 경사를 추가하고 선발 인원을 40인으로 크게 늘렸으며 더 나아가서 시험의 성격이나

11) 『승정원일기』, 숙종 2년 4월 26일조. “禮曹啓曰, 仁宣王后祔廟過後, 所當設科取士, 以示八方同慶之意, 而自前祔廟後, 合他慶或設別試, 或設增廣矣. 前頭顯宗大王祔廟及兩慈殿尊崇, 中宮殿册禮, 合五慶, 與重試對舉別試, 合爲一科, 設行別試, 似爲便當, 大臣之意, 亦如此, 敢稟, 規矩及科期, 則臨時舉行, 何如? 傳曰, 允.”

12) 『승정원일기』 숙종 2년 7월 2일조. “慈懿恭愍大王大妃殿尊號徽獻, 王大妃殿尊號顯烈.”

13) 『숙종실록』 2년 10월 20일과 21일조 참조.

14) 『숙종실록』 2년 6월 16일조 참조.

의미를 더욱 확대해서 대증광시로 하라고 지시하였다.¹⁵⁾

숙종 2년에 실시된 이 대증광시의 초시는 약속한 대로 같은 해 10월에 전국 각 지방에서 실시되었다. 그러자 이동표는 경상도에서 치러진 이 시험의 초시에 응시하였다. 그는 초시에 합격한 후 이듬해(1677) 2월에 복시(覆試)를 치르기 위해 상경하였다. 복시는 서울에서 치렀기 때문에 회시(會試)라고도 하였다. 한양에 머무는 동안 그는 고향에서 자신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를 떠올리고서 어머니가 직접 읽어볼 수 있도록 한글로 또박또박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다.

협석이는 여드렛날 창방(唱榜)하고 아흐렛날 대궐(大闕)에 가 사은숙배(謝恩肅拜)를 하고 그리로서 장가를 가니 제 동년(同年)들이 이는 사람은 다 언약(言約)하고 생원(生員) 장원(壯元), 장원은 만손자의 사촌(四寸) 처남(妻男)이매 장원이 모든 동년들 거느리고 위요(圍繞)를 가려 하니 모든 창부(倡夫)들과 온갖 풍류(風流)들 하고 위요하여 가리라 하니 그 영화(榮華)롭기가 인간(人間) 세상의 가장 드문 일이니 더욱 기특(奇特)하며 모든 재상(宰相)들이나 아주버님 친(親)한 관원(官員)은 다들 보고 물으시니 ‘우연(偶然)한 것이 아닙니다.’ 기별 자세히 아시고자 할 것이매 대강(大綱) 기별합니다. 만이주버님이 벼슬하시고 진사이올망정 이어서 하니 그런 다행(多幸)한 일이 없으니 행여 천행(天幸)으로 이번 급제(及第)까지 하면 극진(極盡)할까 싶되 어찌 되올지, [급제될 하나 못 하나 다 하늘의 뜻이니 부질없이 기다리지 마십시오.¹⁶⁾

이 편지는 전반부가 떨어져 나가 그 내용이 온전치 않지만, 이해에 한양에서 치렀던 생원진사시의 창방(唱榜)과 사은숙배(謝恩肅拜) 및 유가(遊街)과정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당시에 이동표는 복시를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원진사시에 이와 같이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고 유가과정까지 상세히 언급한 것은 그의 사촌 동생 협석이가 이 진사시에 합격했기 때문이었다. 협석은 진사시 복시에 응시한 후 2월 8일에 창방을 통하여 합격을 확인하고서 그 다음날 대궐에

15) 『숙종실록』 2년 7월 1일조 참조.

16) 필자가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동표의 한글편지는 모두 황문환 교수 책임 아래에 진행되는 ‘조선시대 한글편지의 수집·정리와 어휘·서체 사건의 편찬’ 연구팀에서 판독한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다. 다만 필자가 문의를 위해 보충한 내용은 []로 표기하였다. 이동표의 한글편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황문환 교수님과 판독에 직접 참여한 배영환, 신성철, 황은영 등 여러 연구원에게 감사드린다.

나아가 왕에게 사은숙배를 하였다. 비록 생원진사시였지만 합격 후 왕을 알현하고 사은숙배하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더군다나 협석이는 혼인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합격은 더욱 의미가 있었으며 그래서 동기생들로부터 많은 축하와 주목을 받았다.

생원진사시 합격자들은 문무과 급제자들이 그러하듯 사은숙배 후 장원을 앞세우고 서울 시내를 행진하였다. 이를 유가라고 하는데 기생과 풍각쟁이들이 맨 앞에서 이들을 인도하였다. 그런데 이때 마침 생원 장원을 한 사람이 이동표와 척분(戚分)이 있는 사람이었다.¹⁷⁾ 이동표는 당시에 곧 치르게 될 문과 복시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합격 후 유가를 행할 생원진사시 합격자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매우 부러워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의 합격 소식을 기다릴 어머니를 떠올리고는 편지로 이러한 모습을 자세히 전하였는데 마치 직접 현장에서 관람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동표는 위 편지에서 자기 가문에서 연이어 관리와 과거 급제자가 나오게 된 것을 매우 다행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편지에서 말하는 ‘맡아주버니’는 당시 충청감사였던 이명익(李溟翼)을 지칭하며, 그의 아들 협석은 이학표(李學標)로 추정된다.¹⁸⁾ 그러나 후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불행하게 이때의 시험에서 몇몇 응시자가 부정을 저지르는 바람에 문과는 물론 생원진사시도 합격 자체가 취소되는 위기에 직면하였다. 다행히 생원진사시는 합격이 취소되지 않았지만 현재 전하는 『사마방목』에는 2년 후, 즉 숙종 4년(1678)의 증광시에서 합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¹⁹⁾

아무튼 이동표는 이와 같이 자신의 집안에서 관리와 진사 합격자가 배출된 것이 다행한 일이며 만에 하나라도 자신이 이번의 문과에 급제하

17) CD-ROM 『司馬榜目』(서울시스템, 1997)에 의하면, 이때 생원에 장원한 사람은 이현명(李顯命)으로, 본관은 광주(廣州)이고 거주지는 성주(星州)이다. 이현명이 이동표가와 어떠한 척분이 있었는지는 더 조사를 해보아야 할 것 같다.

18) 『진성이씨세보』 권3, 71쪽(국립중앙도서관 2518-62-567) 참조. 다만 ‘맡아주버니’는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편의 형뻘이 되는 남자를 이르는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동표가 이명익을 지칭하면서 이와 같이 호칭했는지 알 수 없다. 이 호칭이 실령 이 편지를 수신하는 이동표의 어머니 입장에서 서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맡아주버니’가 될 수 없다. 위 족보에 의하면 이명익은 이동표의 부친인 이운익의 동생이었다. 그러나 이운익이 그의 재종숙부인 이지온(李之鱣)에게 출계했기 때문에 이명익과 이동표는 손수로 삼종숙지간이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 이 ‘맡아주버니’가 이명익을 지칭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19) 그는 이때의 진사시에서 2등 4위로 합격하였다. 앞의 CD-ROM 『司馬榜目』 참조.

면 매우 좋은 일이지만 시험에 합격하고 안 하고는 오로지 하늘의 뜻이니 부질없이 기대하지 마시라고 간곡히 권유하고 있다. 만일 자신이 과거에 낙방할 경우, 어머니가 실망할 것을 걱정하여 미리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다.

이동표는 같은 달 21일에 시험을 치르고 다음날 하루 쉬는 동안 자신의 소식을 손꼽아 기다릴 어머니에게 또다시 편지를 썼다. 그는 효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가 남긴 여러 통의 편지에는 늘 어머니의 건강을 살피고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는 효성스러운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2월 22일의 편지 중에서 과거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식은 연하여 무사하며 어제 과거 들어 아무 일 없이 글 지어 바치고 나왔사오니 내일 또 들어갑시다. 과거에 급제하기야 하늘만 믿지 어이 기다리겠습니까? 부디 마음 태연히 하시고 조금도 기다리지 마십시오. 험척이는 장가들되 그날 비 때문에 혼사를 극진히 못하였습니다.

이동표는 위 편지에서 어제 시험장에 들어가 아무 일 없이 글을 지어 바치고 나왔다고 하였는데 그 시험이 복시 중 어느 시험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원래 문과 복시의 경우, 초장에서는 강경(講經)을, 그리고 중장과 종장에서는 부(賦)·표(表)·책(策) 등 제술을 시험하도록 되어 있었다.²⁰⁾ 그런데 후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때의 복시에서는 초장과 종장만 치렀으며 초장도 강경이 아닌 제술로 바꾸어 시험을 쳤다.²¹⁾ 그가 편지에서 어제 글을 지어 바치고 나왔다고 한 것은 초장을 말하며 내일 또 들어간다는 시험장은 종장이었다. 초장과 종장 사이에 하루 동안의 휴식기간이 주어졌는데 이동표는 바로 그때 소식을 기다릴 어머니에게 편지를 쓴 것이다.

또 저번의 편지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과거 급제 여부는 오로지 하늘에 달려 있으며 원한다고 반드시 합격하는 것은 아니니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그가 낙방 후의 일을 반복해서 언급한 것은 낙방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20) 『經國大典』, 「禮典」, 〈諸科〉 참조.

21) 조선후기에는 복시에서 三場을 모두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험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는 그의 노력
이자 자신에 대한 다짐일 수도 있다. 그는 이 편지에서 사촌 동생 험석이의
혼인날에 공교롭게 비가 와서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소식도
아울러 전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동표가 숙종 2년 10월에 응시했던 시험은
왕실 또는 중묘사직과 관련된 일곱 가지나 되는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실시된 대증광시였으며, 정규시인 식년시(式年試)에 선발한 33명보다
무려 7명이나 많은 40명의 합격자를 선발하기로 약속한 시험이었다.
이 대증광시는 조선시대 500년 동안 시행된 과거시험 중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특이한 시험이었으며 또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시험 시행 과정에서 말썽이 많았던 시험 중의 하나였다.

III. 부정행위와 이로 인한 파방(罷榜)

이동표가 숙종 원년에 증광 생원시에 합격하고 연이어 문과 향시를
치렀을 때 초시의 시험관들은 그가 복시에서 반드시 장원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 소문이 널리 퍼졌다.²²⁾ 전시에서는 석차만 결정했기
때문에 복시에 합격하면 그것은 곧 급제를 의미하였다. 소문이 이와
같이 자자했기 때문에 그는 이번에 시험을 치르면서도 어머니에게 급제에
큰 기대를 갖지 말라고 거듭 당부하면서도 내심으로는 급제는 말할
것도 없고 장원을 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차 있었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는 이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급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하였던가? 공교롭게도 이동표가 복시를 치르는
과정에서 아주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른 응시생들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이동표와 함께 복시 종장에 응시했던 나주목사(羅州牧使)
윤이익(尹以益)과 청산현감(靑山縣監) 홍제형(洪濟亨) 등 10여 명이 차서
(借書)나 차술(借述)의 부정행위를 저지르자, 같이 시험을 치르는 응시생
들이 이를 발견하고서 시관(試官)에게 고발하였다.²³⁾ 차서란 다른 사람이
응시자의 답안지 글씨만 대필해주는 것이며, 차술이란 다른 사람이 응시

22) 앞의 주 8) 참조.

23) 『숙종실록』 3년 2월 23일조 참조.

자의 답안 내용을 작성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차서나 차술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응시자가 시험장에 들어가 시험을 칠 때 그를 수발하는 수종(隨從) 한두 명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었다.²⁴⁾ 응시자들은 이른바 ‘거벽(巨璧)’이라고 알려진 대술인(代述人)과 ‘사수(寫手)’라고 불리는 대서인(代書人)을 돈 주고 매수한 후 시험장에 수종으로 위장해서 데리고 들어가 이들에게 답안지를 작성하도록 했던 것이다.²⁵⁾ 조선후기에는 응시자가 대술인과 대서인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시험장에 데리고 들어가 답안지를 대신 작성하도록 하는 부정행위가 만연하여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다.²⁶⁾

시관들은 이러한 고발 내용을 전해 들은 즉시 모든 거자(舉子), 즉 과거 응시생들에게 답안지, 곧 시권(試券)을 지참한 채 동쪽 마당으로 가서 줄을 서도록 지시하였다. 응시자와 답안지를 대조하는 조사를 한 끝에 최해원(崔海遠)과 윤상은(尹相殷) 등 12명이 시권을 소지하지 않았으며 이 중 6명, 즉 여필진(呂必振), 윤상은, 임재(林宰), 윤병삼(尹聘三), 최해원, 최욱(崔煜) 등은 초시조차 치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초시를 치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복시 시험장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시관들이 이들을 조사한 결과 최해원은 나주목사 윤이익의 수종이며 윤은상은 유신(柳莘)의 수종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답안지를 지참하지 않은 응시생 중 초시 합격자 6명 가운데에는 자신이 작성한 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정창(李廷昌)이라는 응시생은 자신이 작성한 답안지를 위의 윤상은에게, 그리고 이장백(李長白)과 이형(李衡) 및 이한영(李漢泳) 등도 시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고 자백했으나 답안지를 넘겨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나머지 두 사람, 즉 이두상(李斗相)과 양만상(楊萬祥)은 원래 시권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시관들은 할 수 없이 답안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응시자 12명을 모두

24) 중국에서는 응시자가 시험장에 종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었으나 한국에서는 응시자인 사족들을 우대하여 종자를 시험장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25) 강명관, 『조선의 뒷골목 풍경』(푸른역사, 2003), 155-178쪽 참조.

26) 조선후기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과거시험장에서의 부정행위가 종종 저질러졌다. 그러나 소과의 경우 부정이 더러 행해졌으나 대과의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생각만큼 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형조(刑曹)와 의금부(義禁府)에 가두고 진상을 조사하여 처벌하도록 요청하였다.²⁷⁾

그런데 사실 복시에서만 부정행위가 저질러진 것은 아니었다. 전년, 즉 숙종 2년 10월에 치러진 이 시험의 초시에서도 부정행위가 있었다. 안상진(安相眞)이라는 응시자가 제출한 답안지 내용이 제출 후 누군가에 의해 고쳐져 있었다. 아마 초시의 시관이 그의 부탁을 받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채점과정에서 몰래 몇몇 글자를 고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에는 이것이 사소한 일로 간주되어 안상진만 처벌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그러다가 회시에서의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다시 문제가 되어 급기야는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국왕은 대신들은 접견하는 자리에서 과거시험장에서 부정행위가 저질러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당시 영의정이던 허적(許積)은 이번 과거시험이 다른 시험과 달리 무려 일곱 가지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하기 위해 치러지는 시험이므로 파방(罷榜)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서 파장(罷場), 즉 회시의 초장과 종장만을 무효화하자고 제안하였다. 회시의 종장에서 부정이 저질러졌으므로 종장은 파하고 초장의 성적만 가지고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나 초장도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또 출방(出榜), 즉 합격자 발표를 하지 않았으니 회시를 무효화하자고 주장하였다. 왕실과 종묘사직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진행되는 경과(慶科)이니 만큼 파장을 최대한 줄이고 축하하는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좌의정 권대운(權大運)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비록 매우 의미 있는 경과이긴 하지만 부정행위가 있었으므로 생원진사시를 포함하여 이번에 치른 모든 증광시를 무효로 하고 시험을 다시 치르자고 제안하였다. 복시만을 다시 실시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지속되는 과거시험의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는 조종조에서도 생원진사를 출방한 후에 문과 시험이 난잡하게 실시되어 증광시 전체를 파방한 전례가 있다며 이와 같은 부정행위는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동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시 종장까지 치렀지만 이 문제가

27) 『숙종실록』 3년 2월 23일조 참조.

앞으로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비록 자신이 부정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시험이 취소될 경우 그간의 수고와 노력은 물거품이 될 처지였다. 시험이 끝나자마자 자신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어머니 곁으로 곧장 달려갈 생각이었지만 이 문제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몰라서 답답하기만 하였다. 향간에는 회시 종장만 다음 달에 치러진다는 풍문도 있고 문무과뿐만 아니라 이미 합격자 발표를 마친 생원진사시까지도 아예 취소된다는 소문이 있었다. 하숙집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애타게 세월만 보내던 그는 자신의 소식을 몹시 기다릴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이 편지는 2월 그믐날에 쓴 것으로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알성은 초여드래탈이웁고 우리가 볼 과거는 열흘날이오되 조정의 의논이 생진방(生進榜) 죄다 파방(罷榜)을 할 것이라 하는 사람 있어 시방도 다투오니 그렇게 되면 험석의 진사(進士) 불쌍하오며 우리 초시(初試)도 다 파(罷)하고 새로 시골서 보게 할 것이니 민망하오려니와 의논들이 그것이 가장 중난(重難)하니 동당(東堂) 회시(會試)만 다시 보게 할 것이라 하고 그리 정하였사오니 열흘날에 다 들어서야 결단을 아우를 것입니다. 행여 열흘날 보아 그 과거하오면 스무이튿날이 전시(殿試) 이웁고 사월 초이튿날이 창방(唱榜)이오니 내려가웁기 점점 물러가오니 어마님 기다리시기로 하여 민망민망하오되 사세(事勢)가 그러하오니 어찌하오리까? 조금도 기다리지 마시고 기운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병에] 나왔사오니 행여 과거에 합격하오면 그런 경사없을까 하옵나이다 마는 하늘이 하시는 일이오니 아무려나 되을 것이오니 기다리지 마십시오. 집은 이었는지 방들의 조벽이나 다 잘 하였나이까. 험석이는 알성 보고 공주로 가려 하고 아직 있습니다. 보름날로 이주버님 [감영의 돌아오시매 저는 먼저 열흘께 내려갈 것이오니 저는 과거해도 사월 초열흘 전에 혼자 공주로 내려가웁고 못 하오면 삼월 보름 후에 공주 인마(人馬) 오면 즉시 내려가 집으로 수이 갈 것입니다.

이 편지에는 회시 종장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후 조정에서 논의되던 당시의 상황과 서울에 떠돌던 소문 등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이미 창방을 하고 유가까지 실시한 생원진사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조정의 논의와 문과 초시까지 다 파하고 새로 시험을 치를 것이라는 소문, 그러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과 회시만을 다시 실시할 것이라는 풍문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서 당시 치러질 과거시험 일정 등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알성시는 3월 초 8일에 실시될 것이며

만일 자신이 보았던 과거시험의 회시가 다시 치러진다면 3월 10일에 실시될 것이고, 그 후 전시는 같은 달 22일, 창방은 다음 달, 즉 4월 2일에 실시될 예정이라는 일정도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위 편지에서 초 8일에 실시되고 동생인 험석이기도 응시할 예정이라는 알성시는 실제로는 예정일을 훌쩍 넘겨 3월 26일에 실시되었다. 『조선왕조실록』과 『국조문과방목』에 의하면, 이날 국왕이 문묘(文廟)에서 친히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춘당대(春塘臺)로 자리를 옮겨 박태보(朴泰輔) 등 문과 급제자 7명을 선발하였다.²⁸⁾ 이학표로 추정되는 험석이의 이름이 급제자 명단에 보이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²⁹⁾ 아마 그는 시험 일정이 연기되어 이에 응시하지 못했거나 혹은 응시했어도 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무튼 위 편지에 의하면 험석이는 3월 10일쯤 그의 아버지가 재임 중인 공주의 충청감영으로 내려갈 예정이었다.

그가 편지에서 방의 벽은 제대로 만들었는지를 묻는 것으로 보아 그가 과거를 치르기 위해 서울에 머무는 동안 고향에서는 새로이 집을 지었던 것 같다. 그가 고향에 있었다면 이 일을 주관해야 했을 터이지만 과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서울에 와 있었으니 어떻게 지었는지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아니었지만 그의 동기생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이동표는 혹독한 형벌을 감내하고 있는 중이었다. 회시를 치르기 위해 서울에 올라온 지 한 달여 동안 거의 매일 이와 같이 초조하거나 지루한 생활을 해야 했다. 그러던 중 고향으로부터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답장을 썼다.

소요되 아저씨 편지 지난달 열이튿날 나온 편지 보고 계속하여 기운 평안하시고 해산도 무사하고 아들 낳았다 하니 기쁘기 끝이 없어 하시고 그 후에 기별 몰라 산후통 앓는다 하더니 즉시 나오며 아회도 충실하다 하니 더욱 기쁘고 연하여 성합니까? 즉시 가볼 것이면 아니 좋겠습니까마는 과거가 뒤로 물러 이리 하고 있으니 답답하여 엇그제 공주로 편지하였더니 못 미처 갔습니까.

요사이는 기운이나 어떠하십니까? 달포 되니 그리운 마음 한이 없으며 자식은 연하여 무사하되 과거를 두 날 다 무사히 본 후에 선비들이 남 데리고 들어간 이 있다 하고 방을 아니 내고 그 과거를 파장을 하고 다시 회시를 보게 하여

28) 『숙종실록』 3년 3월 26일조 참조.

29) 『국조문과방목』 2, 863-864쪽 참조.

처음의 초하룻날로 정하였더니 또 열엿새 날로 물렸으니 그 날이나 일정 볼지 오래 머물기 민망하며 처음은 초시 재과하고 감시(監試) 회시도 다 과하여야 옳다 하고 의논이 있어 상소(上疏)도 하고 감시 회시는 과하지 않을까 싶되 우리 불 동안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거니와 엿새날이 다 달으면 아니 볼까 싶되 그날 보아도 방(榜)은 스무 이틀 사흘날 사이나 올 것이니 돌아가기 점점 멀어 민망하며 지난번의 헛거슬 어마님 대방하기 어찌 지내십니까?

더욱 민망하여 아무려나 즉시 기별하고자 한들 예천(醴泉) 원(員)도 어디 갔는지 모르고 인마(人馬) 없이 있사오니 가보도 못 하고 다른 데로 편지도 못 하여 공주로 하여 보내였더니 거기도 순행 나가시고 즉시 전하기 쉽겠습니까? 마침 솟밤 권생원이 우리 무리 이좌수의 사위이니 종을 우리 무리에게로 보내거늘 어렵사리 아됩니다. 아무튼 기운 연하여 조심조심하시고 아희들이나 무사하면 사월에야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 바빠 이만 아됩니다.

그가 회시를 치르기 위해 서울에 머무는 동안 큰아들 회겸(晦兼)이 태어났다는 것과 아내가 산후통(産後痛)을 앓다 나왔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그는 곧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은 회시 일정 때문에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했다. 회시 일정이 이와 같이 결정되지 못했던 이유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의견이 둘로 나뉘어 그 처리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의정 허적과 호조판서 오시수(吳始壽) 등은 경과(慶科)의 의미가 크고, 초시나 회시를 다시 실시하려면 경비가 막대하게 소요된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회시만 재실시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비해 좌의정 권대운과 우의정 허목(許穆) 등은 과거시험과 관련된 폐단이 매우 심하니 차제에 엄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왕은 허적의 의견에 동조하여 회시만을 재실시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회시의 일정이 처음에는 3월 1일로 발표되었다가 16일로 연기되었으나 그마저 확실하지 않았다.³⁰⁾

그러는 사이 이동표가 서울에 올라온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다.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한 달 이상 하숙집에서 머물러야 하는 그로서는 여간 답답한 일이 아니었다. 또 장기간 서울에 머물면서 드는 여러 가지 비용 등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이를 조달해야 하는 그의 처지가 보통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시골의 가난한 선비였기

30) 앞의 편지에는 3월 10일로 되어 있다. 이는 이 시험의 처리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시 설행 날짜가 확정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변동되었음을 보여준다.

때문에 서울에 머무는 동안 노마(奴馬)도 데리고 있지 못하였다. 그래서 고향으로 편지를 보내거나 연락을 취하기도 어려웠다. 마침 인편이 있어서 공주의 맞아주머니에게 편지를 보내 거기에서 다시 고향으로 편지를 보내긴 하였지만 소식을 주고받지 못해 답답하기만 하던 차였다. 바로 이때 큰아들을 낳았다는 소식과 아내가 산후통을 앓다가 나았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던 것이다.³¹⁾ 그래서 이동표는 어머니에게 바로 답장을 써서 그간의 진척 상황을 말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이때 실시했던 문과의 초시와 회시는 결국 모두 무효로 처리되었다.³²⁾ 국왕은 시험 치르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이유로 회시만 과하려고 하였으나 유생(儒生) 이장 등의 상소가 잇따르고 권대운과 허목 등이 경연에서 과방을 주장하는 한편 대간 등이 합사(合辭) 하여 여러 번 과방을 요청하자 국왕은 하는 수 없이 과방하도록 지시하였다. 따라서 『국조문과방목』에도 숙종 2년의 대증광시 합격자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³³⁾ 또 이동표의 「연보」에도 이때의 시험이 과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³⁴⁾

과방되었던 이 대증광시의 초시와 복시가 다시 실시된 것은 숙종 3년 8월과 10월이었다. 그러나 이때에도 시험문제와 부정행위로 시험이 순조롭게 치러지지 않고 다시 복시가 과방되었다.³⁵⁾ 복시가 세 번째 치러진 것은 이듬해, 즉 숙종 4년 2월이 훨씬 넘어서었다.³⁶⁾ 이때 급제한 사람은 장원 이진은(李震殷)과 엄륜(嚴綸) 및 이시만(李善晩) 등을 비롯하여 총 42인이었다.³⁷⁾ 그러나 이동표의 「연보」에 따르면 그는 이 두 차례의 시험에 모두 응시하지 않았다.³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동표는 자신이 부정을 저지르지는 않았지

31) 『懶隱先生文集』 권7, 「年譜」, 앞의 책, 110쪽. “(肅宗大王) 三年 丁巳(先生三十四歲) […] 三月長子晦兼生.”

32) 『숙종실록』 3년 2월 23일조 참조.

33) 『국조문과방목』 2에는 숙종 2년 정시(庭試) 합격자와 숙종 3년 알성시 합격자만 수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같은 책, 862-864쪽 참조.

34) 『懶隱先生文集』 권7, 앞의 책, 110쪽. “(肅宗大王) 三年 丁巳(先生三十四歲)中增廣會試居魁 旋罷榜(自是廢舉 累不赴).”

35) 시제가 잘못된 것과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숙종실록』 3년 10월 5일조, 7-9일조, 15일조 기사 등 참조.

36) 『숙종실록』 4년 3월 29일 기사 참조.

37) 『국조문과방목』 2, 864-868쪽 참조.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두 명을 더 선발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38) 앞의 주 34) 참조.

만 다른 응시자들이 과거시험장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바람에 초시와 복시 합격이 취소되는 불운을 겪었다. 「연보」에 의하면 그는 취소된 복시에서 장원을 하였다고 하니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³⁹⁾ 자신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같은 시험에 응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합격이 취소되고 말았으니 기구한 운명을 닦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IV. 회시에서 장원한 이동표

아들과 딸을 잃어 상심한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시작한 과거 공부였기에 더욱 안타깝고 또 어머니를 뵈는 날이 없었기 때문인지 그는 파방 소식을 전해 들은 후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중부(仲父)가 관찰사로 재직 중인 공주에 들렀다. 「연보」에 따르면 그는 이해 4월에 공주로 내려가 중부를 뵈고 백마강을 유람했는데 이때 지은 시들이 문집에 많이 수록되어 있다.⁴⁰⁾

안타까움과 실망을 안은 채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과거 공부를 단념하고 오로지 성리학 공부에 몰두하였다. 취소되었던 대증광시가 같은 해 8월과 이듬해 2월에 두 차례나 거듭 실시되었는데도 그는 이 시험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한동안 단념한 듯 과거시험과는 인연을 끊고 살았다. 그는 때때로 친구나 제자들과 독서와 강회를 거듭했는데 이때 가르친 제자 중에 이유(李漣) 등은 후에 크게 이름을 떨쳤다.⁴¹⁾

그런데 그가 과거시험을 단념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 당시 과거시험을 시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특히 시관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했다. 대증광시가 다시 실시되기 직전인

39) 「연보」에는 취소된 회시에서 그가 장원하였다고 하였으나 시험 도중 부정행위로 인해 파방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아예 채점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동표가 보낸 편지에도 장원을 한 사실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도 이러한 추정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40) 『懶隱先生文集』 권7, 앞의 책, 110쪽. “(肅宗大王) 三年 丁巳(先生三十四歲) [···] 四月遊白馬江(時先生仲父按節湖西 先生往謁 因遊白馬江 有行錄詩篇).”

41) 『懶隱先生文集』 권7, 앞의 책, 110쪽. “(肅宗大王) 四年戊午(先生三十五歲) 與諸生會講于槐亭(有勉學詩) 六年庚申(先生三十七歲) 讀書于鶴駕山中(先生至是遂廢舉 就間研究 李孤山惟樟兄弟 數來講學 每歎其識詣精深) 九年癸亥(先生四十歲) 四月李漣來學(李公龍宮人 來講業 先生愛其資質 授以小學 勉以向上之業 卒至成就).”

숙종 3년 8월 24일에 유학 원선경(元善慶)은 다음과 같은 상소를 하였다.⁴²⁾

을묘년 이래로는 과거 선발이 공정하지 못하여, 내외가 상응하며 몰래 갖가지 교묘한 짓을 하므로 선발된 사람들을 보면 온 방(榜)이 다 같이 ‘일변지인(一邊之人)’이니, 세상 사람들의 말이 어찌 믿을 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과(慶科)가 지금까지 지체하게 된 것은 과장(科場)에 함부로 들어간 자들의 죄 때문이 아닐 수 없지만 이루 다 별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지금 개장(開場)이 단 하루 남았는데, 서인(西人) 명색(名色)의 사람은 하나도 조정에 있지 않고, 최석정(崔錫鼎)·조종저(趙宗著) 등은 또한 외방(外方)에 나갔으니, 참시고관(參試考官)이 자연히 모두 같은 당인(黨人)에게 돌아가게 되었는데, 무엇을 기탄(忌憚)하여 그전의 버릇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을묘년, 즉 숙종 원년(1675) 이래로 과거에 합격한 사람을 보면 ‘일변지인’, 즉 다 같은 당인이라는 것이었다. 이때의 일변지인은 원선경이 다음 구절에서 서인은 조정에 1명도 남아 있지 않다고 한 점으로 보아 남인을 가리키는데, 과거 합격자가 이렇게 어느 한 당원인 이유는 시관들이 모두 같은 당원이기 때문이었다. 물론 원선경의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된 점이 있지만 남인인 이동표가 한동안 과거에 응시하지 않은 원인 중의 하나도 이러한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동표는 숙종 9년(1683)에 다시 과거시험을 치렀는데 과거에 재도전을 하게 된 까닭은 어머니의 권고 때문이었다.⁴³⁾ 이때 증광시를 설행하게 된 이유는 태조와 태종에게 시호가 더해지고 인조와 효종의 위패가 종묘에 모셔지는 경사가 있었기 때문이다.⁴⁴⁾ 이동표는 이때 실시된 향시에서 2등을 했으며 회시에서는 장원을 하였다.⁴⁵⁾ 그가 장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이 편지는

42) 『숙종실록』 3년 8월 24일조 기사 참조.

43) 『懶隱先生文集』 권7, 앞의 책, 110쪽. “(肅宗大王) 九年癸亥(先生四十歲) [···] 十一月……(時 上孝廟徽號 有慶科 大夫人命之赴).”

44) 『국조문과방목』 2, 889쪽. “以太祖太宗追上諡號 仁祖孝宗世室合四慶.”

위의 이동표의 「연보」에는 이때의 시험이 효종에게 휘호를 올리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실시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조선시대 인물들의 「연보」에는 이와 같이 부정확한 점들이 상당히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다른 사료를 교차 점검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45) 『懶隱先生文集』 권7, 앞의 책, 110쪽. “(肅宗大王) 九年癸亥(先生四十歲) [···] 十一月 增廣及第出身([···] 遂中東堂解第二 會試居魁……).”

같은 해 10월 26일에 작성한 것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각(卽刻) [합격자 발표가 나 장원(壯元) 급제(及第)를 했으니 천행(天幸)이며 시방(時方) 고대(苦待)하실 것이니 이놈을 급급히 가라 하되 사흘 후에야 갈까 [하니] 그 사이를 어찌 기다리실꼬 [걱정합니다. 기운이나 계속하여 평안하시며 모두들 무사합니까? 자식은 계속하여 평안하니 염려 마십시오. 왕께서 역질(疫疾)을 시작하여 열흘이 지났으니 나라 근심이 가없되 극히 순하니 □한 겸사이되 좌차 전시(殿試) □ 초하룻날로 결단하여 못 될 듯하되 아직 알지 못하니 사나흘 기다려 전시가 쉽지 못할 양이면 급급히 내려가려니와 아무쪼록 기운이나 조심조심하시고 이 기별 가면 어머니님 마음을 위로할 것이니 다행이며…….

이동표는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과거에서 장원이 되었으니 다른 누구보다도 매우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는 소식을 몹시 기다릴 어머니를 떠올리고 편지를 전할 사내중에게 급히 달려가도록 당부하였다. 그러나 이 사내중이 아무리 빨리 달려간다고 한들 사흘이나 걸리는 고향에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그사이 애간장을 태울 어머니를 생각하니 매우 안타까웠다.

한편 과거시험의 최종 성적은 전시(殿試)에서 결정되었는데 1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도 혹시 예측하지 않은 일이 터져 전시가 연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국왕이 역질, 즉 천연두에 걸렸기 때문이다.⁴⁶⁾ 이 편지를 보내는 10월 26일에는 왕의 병세가 심해졌다가 나아졌다는 반복하는 중이었다.⁴⁷⁾ 그는 전에도 과거 시험 때문에 서울에서 오래 지체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랬는지 사나흘 기다려 보았다가 전시가 쉽게 선행될 것 같지 않으면 곧바로 고향으로 내려갈 계획이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편지를 보낸 후 5-6일이 지난 11월 3일에 그는 다시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서 그간의 사정을 아뢰었다.

그믐날 여천(麗川) 사령(使令)이 돌아가는 데 아뢰었더니 보았으며 추위에 기운

46) 『숙종실록』 9년 10월 18일조 참조.

47) 왕의 병세는 10월 28일 천연두의 부스럼이 아물어 딱지가 생기면서 점차 회복되었다. 『숙종실록』 9년 10월 28일조 참조.

(氣運)은 어떠하십니까? 방(房)을 답게 하고 조심조심하심을 못내 바라오며 여기서는 편지 자주 보내되 거기서 오는 기별(奇別)을 들을 길 없어 달이 넘어가니 사모(思慕)가 끝이 없으며 자식은 계속하여 연목골 있어 평안(平安)하니 내 집이나 다르지 아니하니 염려 마십시오. 가슴도 아니 앓습니다. 임금의 병환(病患)은 거의 차복(差復)하시어 면상(面上)은 더테가 떨어지신다 하니 고금(古今)에 없는 경사(慶事)이오며 전시(殿試)도 열흘째 될까 싶으니 창방(唱榜)이 지나면 즉시 급(急)히 가려니와 아직 날은 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달을 넘기고도 전시가 실시되지 않자 이동표는 다시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신은 연목골에서 내 집과 다름없이 편하게 지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추측컨대 전시를 보기 위해 하숙집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연목골에 있는 이명익의 집으로 잠시 거처를 옮겨서 하숙집에서보다는 훨씬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던 듯하다. 이명익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가로 치면 그의 숙부였는데 호서관찰사를 역임한 후 당시에는 승지로 임명되어 서울 연목동에 거처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⁴⁸⁾ 다만 그가 거처를 급하게 옮기다 보니 고향에서 오는 편지가 숙부의 집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집안 소식이 더욱 궁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동표는 앞의 편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시 시행 일자가 지연되었는데도 낙향할 수가 없었다. 국왕의 병세가 점차 호전되어 염증도 낮고 얼굴에 났던 부스럼도 딱지가 생기며 아물어 머지않아 전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회복이 빠를 경우 전시를 10일경에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가능한 시점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전시 합격자가 발표되면 즉시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지만 정확히 언제 돌아갈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이동표는 여동생과도 절친하게 지냈던 것 같다. 그의 후손가에 전하는 한글간찰 중에는 그가 전시를 기다리면서 같은 해 11월 19일에 여동생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

지난번 네 편지 못 보니 섭섭하였는데 석길이와 적은 것 보고 반가워하며

48) 이명익이 승지로 임명된 것은 숙종 4년 윤3월 27일이었다(『숙종실록』 참조). 그러나 그가 이동표가 시험을 치르던 숙종 9년에도 승지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과거에 급제한 후 그의 아내에게 보낸 간찰에도 승지 아주머니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내 급제(及第)를 하니 네가 즐거하는 모습을 보는 듯하다. 서방의 병환이 어찌 그러하고? 돌림병처럼 거듭 앓는다 하니 비록 대단치 아니하나 어떠하고? 멀리서 염려스럽기 한이 없다. 고모도 어머님 병환 나아 계시다 하니 다행이며 나도 무사하고 스물닷새날 창방(唱榜)하면 스물이렛날이나 여드렛날 사이에 길 떠날 것이니 초닷새 전에 아니 들어가라? 김 직장(直長)께서는 내내 함께 다니고 함께 살고 함께 공부하다가 한 방에서 방(榜)을 듣고 혼자 내려갔으니 그런 애달픈 일이 없다. 네 집도 병환을 부디 조심하고 잘 살펴라.

여동생의 남편, 즉 매제가 병환 중이었던지 그에 대한 안부를 먼저 물은 다음, 25일 창방을 하면 27일경 길을 나설 것이고 그러할 경우 다음 달 5일 전에는 고향에 도착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말하고 있다. 이동표는 이 편지에서 지인인 김 직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는 직장을 역임한 김모인데, 이동표와는 절친했기 때문에 과거시험 준비를 하는 동안 매사를 함께한 사이였다. 그런데 그가 회시에서 낙방을 하고서 혼자 쓸쓸히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동표가 여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내내 마음이 아팠던 모양이다.

전시를 보기 위해 한 달가량 서울에서 무작정 기다려야 했던 이동표는 전시가 아무리 늦어도 11월 하순경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자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다.

날로 헤아리면 스물여드렛날 길을 나서 사흘 [후 충주에 가고 거기서 영분(榮墳)하게 기별하였으니 하루 지나고 또 사흘이면 집에 들어갈 것이니 이달이 작은지, 작으면 선달 초나흘과 닷새날 사이에 집에 갈 것입니다. 행여 천만(千萬) 요행(僥倖)으로 또 장원 곧 하면 즉시 전적(典籍)에 붙일 것이니 그렇게까지 하면 사은숙배(謝恩肅拜)를 이주 하고 말미 정하고 내려가리라 하니 두어 날이나 더 늦추려니와 사람이 또 그리 바라오리까? 이 장원은 그다지도 아니하여 도토리만 하니 내게 오며, 비록 또 한들 도리어 두려운 일입니다. 그 무엇이 욕심이 있겠습니까? 행여 돌아갈 날을 한 굵으로 마치 기별하였다가 어머님 못 기다려 할까 하여 이 말씀 아뢰입니다. 이번 장원만 하여도 상하의 자자하게 이르고 비록 이 시절 사람이 울지라도 모두 거룩히 이른다 하니 내 무슨 사람이라 이러한지요. 기쁘지 아니하여 너무 높은 과거(科擧)도 불안(不安)해합니다.

옷은 남의 것이 짧을지언정 춥게 아니하고 있더니 원당의 동옷 왔고 충주에서 중치막 하나 명주 얇은 바지 하나 왔으니 창의와 관디는 관인이 하니 아직 절박한 것은 없으나 중치막 짧거니와 관계합니까? 관디는 장래(將來) 입게 하노라 하여 사모관대(紗帽冠帶)를 하거니와 푸른 관대는 어떠한 곳에 입고 명시(明時) 때부터

붉은 관대 입을 것이나 □□□□ □□ □□□ 그것이 급합니다.

그는 전시 후 급제자가 발표되면 28일쯤 서울을 떠나 3일 거리에 있는 충주에 들러 영분을 하느라 하루 묵고 또 길을 떠나 3일 후인 12월 4일이나 5일에 집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물론 서울을 떠나기 전에 급제자로서 거쳐야 하는 방방례(放榜禮)와 사은숙배 및 유가를 모두 마치고서 고향을 향해 출발할 예정이었다. 그가 충주에 가서 영분을 하는 것은 조상의 무덤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급제하거나 관직에 제수되었을 때에는 으레 조상의 무덤에 가서 이러한 사실을 선조에게 고하였는데 이를 영분이라 한다.

그런데 만일 그가 회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시에서도 장원으로 결정되면 위의 일정이 약간 늦추어질 수밖에 없었다. 장원으로 합격한 신급제자(新及第者)는 곧바로 6품직(品職)에 제수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는데 그가 예상하기로 자신이 만일 장원이 되면 성균관 전적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한 경우 국왕을 다시 알현하여 전적으로 임명해준 것에 대해 사은숙배하고 성균관에 들러 선임자들에게 인사를 한 후 휴가를 얻어서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다. 따라서 고향으로 가는 일정이 며칠 정도 더 늦추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하여 일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어머니가 걱정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후에 그가 장원이 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어머니가 받을 상처 또한 매우 염려되었다. 그래서 그는 회시에서 장원이 된 것만으로도 이미 명성이 장안에 자자하고 자신은 다시 장원을 하는 것이 두려우며 이를 욕심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향사에서 2등을 했고 회시에서도 장원을 했기 때문에 그와 그의 가족들은 전시에서도 장원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가 큰 기대를 가졌다가 실망하지 않도록 미리 이와 같이 여러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한편 그는 회시에 응시하기 위해 10월 초에 상경하면서 그다지 많은 옷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다. 국왕의 병환으로 전시 일정이 한 달가량 지연되면서 바꾸어 입을 옷이 없고, 날씨가 추워지자 그는 남의 옷을 빌려 입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빌린 옷들이 짧아서 어색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추위를 면할 수 있으니 다행이었다. 기후가 점차 추워지고 서울에서
서의 체류기간이 늘어나자 원당과 충주 등지에서 살고 있던 친척들이
고맙게도 겨울옷을 한두 벌 보내주었던 것 같다. 그는 또 편지에서
과거 급제 후 관리로 임명되면 관복을 입고 관대를 차야 하지만 아직은
관리로 임명된 것이 아니니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 너무 서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전시는 이동표가 예상했던 대로 11월 하순에 시행되었다. 『조선왕조실
록』에 의하면 전시가 실시된 것은 11월 21일이었다.⁴⁹⁾ 그러나 전시에서
그의 성적은 그다지 좋지 못하였다. 『국조문과방목』에 따르면, 그의
성적은 병과(丙科) 1등이었는데 이를 전체 석차로 환산하면 급제자 35명
중 11등이다.⁵⁰⁾ 나쁜 성적은 아니지만 전시에서도 장원을 할 것이라는
그나 그의 가족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전시에서는 가문의 배경과
당파 등을 고려하여 석차를 정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낳은 것으로
짐작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동표는 친신만고 끝에 과거에 합격하였
다. 그러나 가난한 시골 선비들은 과거에 합격해도 갖추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관리가 되면 관복과 관대
등을 비롯하여 벼슬살이를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이 마련해야
했으며, 이동할 때 필요한 노마도 직접 준비해야 했다. 또 조선후기에는
서울의 주택난이 심각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사람의 집에 얹혀살거나
히숙을 해야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혼자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 때문에 시골 선비들에게
는 벼슬살이가 또 하나의 고행의 시작이었던지도 모른다.

49) 전시가 실시된 날이 『조선왕조실록』에는 11월 21일로, 그리고 『국조문과방목』에는
11월 22일로 되어 있다. 이해 11월 15일 이동표가 어머니에게 보낸 간찰에는 ‘던시
스므흐른날 창방 스프닷쨌날 덩흐엿스오니’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

50) 『국조문과방목』 2, 889-892쪽 참조. 「연보」에는 ‘許琬榜第六人’이라 하여 6등으로 합격
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懶隱先生文集』 권7, 앞의 책, 111쪽 참조.

V. 연망을 맺는 자리, 도문연(到門宴)

새로 급제한 사람들은 방방연(放榜宴) 다음날 국왕에게 사은숙배를 하고, 이어서 성균관에 가서 알성례를 행하였다.⁵¹⁾ 그다음에는 장원을 중심으로 3일 동안 거리 행진을 하였다. 문과에 급제한다는 것은 이동표가 언급했듯이 ‘영화롭기가 인간 세상의 가장 드문 일’ 중의 하나였다.⁵²⁾ 그러나 급제 후 거쳐야 할 과정이 많았다. 그중 하나가 금의환향 후 커다란 잔치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었다. 이 잔치를 ‘자기 집의 문에 도착하여 여는 잔치’라는 뜻으로 ‘도문연(到門宴)’이라 했는데 이때에는 가문의 친인척과 인근의 지인들이 모두 불러 모아 잔치를 하였다. 성격이 차분하고 매사에 꼼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동표는 이와 관련한 편지를 어머니에게 보내었다.⁵³⁾ 잔치를 위해 여러 가지를 미리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예안(禮安)에도 도문연 날짜를 미리 기별하셨습니까? 아자바님네 부디 나오소서 하고 원답이 부인 아자바님도 아자바님께서 가시게 하라 하고……. 사촌(四寸)들이 나 다 와 일개 못 자면 작하리까? 달래 아자바님은 어찌 아니 오십니까? 그런 서운한 일 없으며 충만 아자바님께서 나와 계십니까? 혹 아니 와 계시면 들성은 멀고 추우니 기별도 못 하려니와 풍산(豊山)으로는 사람 연하여 보내어 부디 오시게 하고 구담(九潭)도 모두 다 오시게 하소서. 하회 누의님도 오십니까? 부디 담바위나 못뒤나 다 사람 여러 번 보내소서.

서울 역질(疫疾)이 많이 있으니 이리 와도 마음 놓이지 아니하니 여러 곳이나 두루 다녀가려니와 이 편지 나가는 것이나 즉시 말고 어디 두었다가 보소서. 그곳도 [전염병이] 근처에 어디 들었습니까? 아무려나 이 사이나 무사하기 바랍니다. 미처 보와 경연(慶宴)처럼 술잔이나 하고자 하니 그때에 승지(承旨) 아자바님 벼슬 놓으시면 내려오고자 하시니 그 유심(留心)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도 창방(唱榜) 날과 사은 날에 아자바님이 데리고 □□ 대궐의 들어가 계시어 또 데리고 나오시며 재상(宰相)들 집에 다 데리고 가시니 그 영행(榮幸)이 끝이 없으며 저자 사람 다 이르니 비록 소과일지라도 아자바님 그리 서울 계실 때에 한 일이

51) 『經國大典』, 「禮典」, 〈朝儀〉. “新中文武科生員進士者 放榜翌日 詣闕謝恩 次詣成均館謁聖.”

52) 이동표가 그의 어머니에게 보낸 첫 편지 참조.

53) 이 편지는 앞뒤가 떨어져 온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신인이 그의 어머니인지 아니면 아내인지 확인할 길이 없으나 그가 보낸 편지들 대부분이 어머니에게 보낸 것들이어서 일단은 수신인을 어머니로 추정하였다.

다행이라고 합니다. ……

이동표는 그의 어머니에게 모든 친척이나 지인들이 다 올 수 있게 꼼꼼히 챙기도록 당부하였다. 사람을 여러 차례 보내어서라도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하라고 부탁하였다. 혹시 실수로 초청하지 못하여 도문연에 참석하지 못하면 후에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친척이나 지인을 하나하나 직접 거론하며 모두 챙기도록 한 것이다. 이동표의 처가는 안동권씨(安東權氏)였으며 동생 이세표의 처가는 흥양이씨(興陽李氏)였다. 이들의 외가이자 어머니의 친정은 순천김씨(順天金氏)였다. 또 아버지 이운익(李雲翼)이 출계했기 때문에 선외가는 영해신씨(寧海申氏)이고 생선외가는 청주정씨(淸州鄭氏)였다. 이들은 대부분 안동의 풍산이나 구담, 선산(善山)의 들성 등지에 살고 있었다.⁵⁴⁾ 그래서 이동표는 이들에게 일일이 사람을 보내어 초청하도록 당부하였다. 비록 선산의 들성은 멀고 날씨도 춥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안동 인근에 사는 친척들에게는 반드시 사람을 보내어 꼭 초대를 하도록 부탁하고 있다. 하회의 누님은 안동 하회에 사는 풍산유씨(豊山柳氏) 유후창(柳後昌)에게 출가한 누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⁵⁵⁾

그런데 그의 집안 형편이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문연을 성대하게 치를 수는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친지와 인척 등을 위주로 술이나 한두 잔하는 조촐한 잔치 정도로 계획하였다. 그렇지만 만일 현재 승지로 있는 아주버님이 벼슬을 그만둔 후 이 도문연에 참석한다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아주버님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명익으로 추정되는데, 그는 이동표가 과거에 급제하자 창방하고 사은하는 날에 직접 이동표를 데리고 궁궐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재상집을 돌아다니며 일일이 소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아주버님이 승지를 그만두게 되면 이 도문연에 참석할 예정이니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가 만일 도문연에 참석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예천과 안동 일대에 있던 전현직 관리들이 그를 만나러 이 자리에 올 것이기 때문이다.

54) 이동표 처가나 외가의 세거지와 세거성씨에 대해서는 권오영 교수가 알려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권 교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55) 『진성이씨세보』 권3, 71-72쪽 참조.

가족이나 친지의 입장에서 보면 도문연은 의례적인 행사로, 급제를 축하하고 벼슬살이를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인척들을 중심으로 특별히 재산을 분배하는 자리였다.⁵⁶⁾ 그러나 예천과 안동 일대에 있던 전현직 관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도문연은 장래가 촉망되는 신급제자를 만나 새로운 연망(聯網)을 구축하는 자리였다. 선배 관리들의 입장에서는 신급제자의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 그가 관리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신급제자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선배 관리들의 의견을 적극 지지하고 추종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따라서 이동표의 처지에서는 승지 아주버님의 도문연 참석을 각별히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

이 편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승지 아주버님이 창방일에 그를 직접 데리고 궁궐에 들어가고 재상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여 일일이 소개하였으며, 벼슬을 그만두게 되면 시골에서 열리는 조카의 도문연에 참석하려고 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는 단순히 같은 가문의 어른으로서 이제 막 급제한 조카의 출세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조선시대에 비록 당당히 과거에 급제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 관리로 성장하는 데에는 연망, 즉 인맥의 형성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서울의 고위 관리나 지방에 파견된 선임 관리들의 도움이나 후원이 없다면 후임자의 관리생활은 순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시 집정자들의 눈에 거슬려 과거에 급제했으면서도 오랫동안 제대로 된 관리 노릇을 해보지 못했다. 집정자는 그가 산남(山南)의 사론을 주도한다고 오해하여 성균관 학유(學諭)로 분관(分館)한 이후 오랫동안 그 자리에 방치해두고 다른 자리로 승진시키지 않았다.⁵⁷⁾ 4년이 지난 숙종 13년에 겨우 품계가 조봉대부(朝奉大夫)로 오르고 창락도찰방(昌樂道察訪)으로 발령을 받았다.⁵⁸⁾ 그렇지만

56) 과거시험 합격자의 친인척들이 그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재산을 특별히 분급하는 것이 조선시대의 관례였는데, 이 재산분배는 대개 도문연의 자리에서 이루어졌으며 여기에 참석한 전현직 관리들이 이 재산분배의 증인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해준 외, 『전통사회와 생활문화』(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1), 46-50쪽 참조.

57) 『懶隱先生文集』 권7, 앞의 책, 111쪽. “(肅宗大王) 十年甲子(先生四十一歲) 十一月 權知成均館學諭(分館時 當路者以爲山南士論 此人皆主之 遂抑置成均 四年不調).”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이동표는 원래 괴원, 즉 승문원에 분관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영의정 김수항이 그가 告廟疏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승문원에 분관하는 것을 반대하였다(10년 8월 3일조 참조).

58) 『懶隱先生文集』 권7, 앞의 책, 111쪽. “(肅宗大王) 十三年丁卯(先生四十四歲) 十月陞朝

이 찰방직은 외관직에 불과했으며 결코 그에게 걸맞는 자리도 아니었다.

VI.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동표는 문과시험과는 그다지 큰 인연이 없었던 듯하다. 그는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같이 시험을 본 응시자들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합격의 기회를 잃고 말았다. 몇 년 후 다시 도전한 그는 향시에서 2등, 회시에서 장원을 차지했는데도 전시에서 그다지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였다. 또 그는 급제 후 분관 과정에서 집권자의 눈에 벗어나 오랫동안 성균관에 머물러 있었다. 무척이나 어렵게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관리가 되었지만, 관리로서 화려한 삶을 살지는 못한 것이다. 물론 한때 왕의 신임을 얻어 청요직에 오르기도 하고 여러 차례 관직에 제수되기도 했지만 그는 번번이 이를 거절하였다.⁵⁹⁾ 그래서 유림들은 그를 ‘소퇴계’로 칭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조선시대인들 대부분은 이동표처럼 과거와 관직생활에 이중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을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세속적이라 규정하고 이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하였다. 이동표는 상심한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과거에 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향시의 시관들이 자신을 장원으로 지목했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일부러 시험장에 가지 않으려고 시험 당일 일찍 일어나 머리를 천 번이나 빗다가 늦어서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또 그 자신은 과거시험을 보지 않으려고 했으면서도 과거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아들을 독려하고, 아내에게 과거시험을 보러 가는 아들을 잘 돌보아주도록 신신당부하였다. 이러한 사실 등을 통해서 조선인들의 과거에 대한 이중적 자세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과거는 조선시대인들에게 일상이자 지난한 욕망이기도 하였다. 과거 급제는 문자를 이는 사람에게만 열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아니다. 문자를 모르는 사람까지도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이동표의

奉大夫 除昌樂道察訪.”

59) (肅宗大王) 十五年己巳(先生四十六歲) [···] 閏三月 拜成均館典籍 [···] 翌日擢拜弘文館副修撰知製教 兼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郵官直除玉堂 蓋異數也 先生以陞擢太驟 上章力辭 上不允).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오랫동안 경전을 읽고 글을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던 그만 과거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다. 한글만 겨우 읽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머니나 아내 그리고 여동생까지도 거의 맹목적으로 그가 과거에 급제하기를 열망하였다. 물론 그것은 조선시대에 과거만이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가문을 일으키며 인간다운 인간으로 대접받으며 살 수 있게 하는 거의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 조선시대인들은 과거에 대해 더욱 이중적일 수밖에 없었다. 조선시대인들에게 과거는 일상생활의 일부였으나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저 멀리할 수만도 없는 욕망이자 희망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진성이씨 이동표가 언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科學叢錄』.
- 『國朝文科榜目』. 太學社, 1984.
- 『懶隱先生文集』.
- 『承政院日記』.
-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續』.
- 『朝鮮王朝實錄』.
- 『眞寶李氏世譜』. 국립중앙도서관, 청구번호 2518-62-567.
- CD-ROM 『司馬榜目』. 서울시스템, 1997.
- 강명관, 『조선의 뒷골목 풍경』. 푸른역사, 2003.
- 강민구, 「樂齋 書簡을 통해 본 17세기 嶺南 서간의 특질」. 『동방한문학』 30, 2006.
- 김일근, 『三訂版 諺簡의 研究』. 건국대학교 출판부, 1986.
- 백두현, 『현풍곽씨 인간 주해』. 태학사, 2003.
- , 『한글편지로 본 조선시대 선비의 삶』. 역락, 2011.
- 송준호·송만오, 『朝鮮時代文科白書』. 삼우반, (上) 2008, (中) 2010.
- 안동교, 「간찰에 나타난 학술적 교유의 양상들」. 『고문서연구』 38, 2011.
- 원창애,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의 관직 진출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43, 2007.
- 이상훈, 「임진왜란 연구에서 간찰의 활용」. 『고문서연구』 33, 2008.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1994.
- 이승희, 『순원왕후의 한글편지』. 푸른역사, 2010.
- 이해준 외, 『전통사회와 생활문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1.
- 이향백, 「조려 이유대의 서간에 나타난 출처 사상」. 『한국사상과 문화』 35, 2006.
- 조좌호, 『한국과거제도사연구』. 범우사, 1996.
- 조평환, 「추사 김정희의 유배서간에 나타나는 제주의 생활정서」. 『동방학』 13, 2007.
- 조항범, 『주해 순친김씨묘 출토 간찰』. 태학사, 1998.
- 차미희, 『조선시대 문과제도 연구』. 국학자료원, 1999.
- 황문환, 『16, 17세기 인간의 상대경어법』. 태학사, 2002.
- 황은영, 「조선시대 인간 자료의 명칭 고찰」. 『정신문화연구』 123, 2011.

국 문 요약

이 글에서 필자는 이른바 ‘진성이씨 이동표가 언간’이라고 알려진 한글간찰 몇 점을 통해서 조선후기 과거제도 운용상의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 아울러 조선시대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과거가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동표(李東標, 1644-1700)는 조선 숙종대에 활약했던 문신으로 그가 작성한 남긴 한글간찰 36점이 ‘진성이씨 이동표가 언간’이라는 이름으로 전하고 있는데, 조선시대 일상생활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이동표가 숙종 2년 10월에 초시에 응시했던 시험은 왕실 또는 종묘사직과 관련된 일곱 가지나 되는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실시된 대증광시였으며, 정규시인 식년시(式年試)에 선발한 33명보다 무려 7명이나 많은 40명의 합격자를 선발하기로 약속한 시험이었다. 이는 조선시대 500년 동안 시행된 과거시험 중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특이한 시험이었으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시험 시행 과정에서 말썽이 많았던 시험 중의 하나였다.

이동표는 자신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다른 응시자들이 과거시험장에서 부정을 저지른 탓에 초시와 복시 합격이 취소되었다. 그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시험 자체가 무효화되고 만 것이다. 그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같은 시험에 응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합격이 취소되고 말았으니 기구한 운명을 탓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동표는 천신만고 끝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러나 가난한 시골 선비들은 과거에 합격해도 갖추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관리가 되면 관복과 관대 등을 비롯하여 벼슬살이를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야 했으며 이동할 때 필요한 노마도 자신이 준비해야 했다. 또 조선후기에는 서울의 주택난이 심각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사람의 집에 얹혀살거나 하숙을 해야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혼자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시골 선비들에게는 벼슬살이가 또 하나의 고행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른다.

조선시대인들은 대부분 과거와 관직생활에 이중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을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면

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세속적이라 규정하고 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였다. 이동표가 상심한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과거에 응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시험장에 가지 않으려고 머리를 천 번이나 빗다가 늦어서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이러한 이중적인 자세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는 조선시대인들에게 일상이자 이루기 어려운 욕망이었다. 과거 급제는 문자를 아는 사람에게만 열망의 대상이 아니었다. 문자를 모르는 사람까지도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물론 그것은 과거만이 조선시대에 가문을 일으키고 인간다운 인간으로 대접받으며 사는 거의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 조선시대인들은 과거에 대해 더욱 이중적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진성이씨 이동표가 언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투고일 2011. 7. 11.

수정일 2011. 8. 5.

게재 확정일 2011. 8. 16.

주제어(keyword) 과거(state examination), 한글편지(Hangeul letter), 대증광시(Grand Special Examination), 식년시(Regular Examination), 향시(county examination), 회시(second stage examination), 장원(man who took the first place in the examination), 진성이씨 이동표가 언간(JinSeong Lee Dong-pyo Family's Korean letter)

